

# 옛 그림 속 이야기

20 누각아집도

## 한 잔의 차 속에 평등사회 이상 담아

18세기 말에 이르러 이전까지 양반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학계와 문예계에서 중인(中人)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중인은 위향인(委巷人)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계층으로 사대부와 평민의 중간계급에 속한다. 이들은 주로 양반가의 서얼 출신이나 영락한 양반의 후손 등으로 고급관료나 양반은 될 수 없었고 다만 의관이나 역관, 화원 및 규장각 서리 등 하급관리직에만 출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 중국과의 문물교류가 활성화되고 상품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전문직에 종사했던 이들의 역할도 새롭게 부각됐다. 이들은 문인사대부들, 그 중에서도 북학파 문사들과 교유해 상 위문화를 수용하고 다룬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시사(詩社)나 모임을 결성해 중인계층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다.

조선 후기 정조의 치세 동안 활동했던 궁중 화원 이인문(李寅文, 1745~1821) 역시 신분상으로 중인에 속했지만, 독자적인 화경으로 문인화에 일가를 이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누각아집도(樓閣雅集圖)'는 그가 76세 되던 해에 제작한 작품으로 그림 안에 담긴 산세와 수목의 표현에서 원숙한 경지에 이른 노대가의 필치를 엿볼 수 있다.



이인문 '누각아집도', 1820년, 지본수묵담채, 86.6x57.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의 돈대 위로는 그림의 주제인 누각이 한 채 보이는데 그 안으로는 몇 명의 문사들이 묘사돼 있다.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한가로운 시를 읊조리고 있는 모습에 마치 옛 성인과 도인의 풍모를 닮았는데 이들 모두는 실제로 이인문과 교유했던 중인문사들이다. 그림의 우측여백에 이인문이 쓴 화제에는 이날 함께한 인물들과 정경이 묘사돼 있다.

“**(전략) 책상에 의지해 축을 펴는 이는 도인(道人, 이인문)이요, 손에 그림 종이를 잡고 물끄러미 보는 이는 수월(水月, 임희지)이요, 거문고를 놓아두고 난간에 기댄 이는 주경(周卿, 김영면)이요, 걸상에 걸터앉아 길게 읊조리는 이는 영수(穎叟, 서영수)이니 이내 사람은 가히 죽림칠현(竹林七賢)에 대적할 만하구나. (후략)**”

때는 맑고 푸른 계절인 초여름, 네 명의 중인문사들은 청아한 절경 속 누각에 모여 풍류의 한때를 즐겼다. 이들 모두는 중인시사에 참여한 인물로 임희지(林熙之, 1765~?)는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일원이었으며 이인문은 당시 시회에 참석한 이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다. 특히 임희지는 중국어 역관으로 활동하면서 그림실력까지 뛰어나 그가 그린 대와 난 그림이 문인화가인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작품과 비교되기도 했다.

한편 숨을 내쉬 때마다 난향이 일었다는 김영면(金永冕, 18세기말~19세기초) 역시 '서원시사(西園詩社)'의 일원으로 활동했는데 거문고 실력이 뛰어나서인지 그림에서도 그의 곁에 거문고가 놓여있다. 또한 시를 읊조리고 있는 서영수(徐穎叟, 18세기말~19세기초)는 규장각의 관리로 봉직했던 인물이다. 때문에 이들은 비록 중인의 신분이었지만 중국의 위진시대를 대표하는 은자들의 모임을 표방할 정도로 자신들의 문화적 역량을 자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탈속적인 모임에는 차가 빠질 수 없을 것이다. 누각의 왼편으로 제량호(提梁壺)가 얹혀진 화로와 찻물을 다리는 다동(茶童)이 보이고, 화면의 반대쪽으로는 다호(茶壺)에 물을 담

아 돌아오는 시동도 표현돼 있다. 당시에는 이처럼 중인시회에 차가 빈번히 등장할 정도로 차 문화가 확산됐다.

중인문사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신분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키웠고,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모임을 결성해 평등사회의 이상을 꿈꾸었으며 저술과 그림을 통해 그들의 삶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 속에서 마시는 한 잔의 차는 어떤 의미였을까. 문득 그림 한편에 위치한 고소한 그루에 시선이 간다. 술향과 어울려서 생동하는 차의 기운이 초월적 이상을 꿈꿨던 중인문사와도 훌륭히 조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아시아문화연구원

##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17 천자암에서 가져 온 것



백양사에서 서용 스님 영결식을 취재하고 다음 날 순천 천자암을 찾았다. 차를 놓고 가파른 길을 조금 걸어야 했다. 전 날 내린 눈 때문에 길은 좋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설경이 이유 없이 마음을 설레게 했다.

연화실에 활안 스님이 계셨다. 쌍향수(雙香樹)를 찍으러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스님은 대뜸 "쌍향수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고 물으셨다.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공리를 해봤지만 여백한 거랑을 할 수가 없었다. 스님이 소리 없이 웃으시더니 쌍향수는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으니 잘 가지고 가라고 하셨다.

연화실을 나와 스님이 얼마든지 가져가라 하신 쌍향수를 바라보았다. 다음에 와서 가져가기로 하고 사진만 찍어왔다.

## 옛 판화의 세계

### 오달 스님이 원한을 씻다 오달세원(悟達洗冤)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오달 국사가 무릎에 생긴 사람얼굴의 종기로 고통을 받다가 팽주 다룡산 밑의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 샘에서 가락가존자의 인도로 인면장을 씻어내는 장면을 판각한 장면이다.

오달 국사는 중국 당나라 때의 지현 법사로 속성은 진 씨이며, 삼학을 꿰뚫고 많은 이적을 보여 사람들은 스님을 진보삼이라 불렀다. 지현 스님은 14세에 열반경 강의를 했을 정도로 중국불교사상의 손꼽히는 한 분이다.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지현 스님이 당나라의 국사가 돼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을 무렵, 무릎 위에 사람의 얼굴을 한 종기가 생겨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됐다. 이 름난 의원들 모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러다 문득 예전에 문동병 걸린 스님의 말이 생각나 촉나라의 다룡산으로가 바위 밑 샘물에서 인면장을 씻으려 했다. 그러자 인면장이 큰소리로 말했다.

"잠깐 멈추시오! 나는 한나라 때 원앙이었던 당신 때문에 허리를 자르는 형을 받아 죽은 조차이요. 얼마나 원통했는지 여러 생을 앙갚음을 하려 했으나 10생 동안 고승이

왜 계율을 잘 지키므로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당신이 임금의 총애를 받아 분에 넘치게 사치하고, 명예를 탐하는 마음이 생겨 기회를 틈타 인면장으로 생겨나 당신을 해하려 한 것이요. 그런데 지금 가락가존자가 삼매의 물로 나를 씻어주시니 이 뒤로부터 당신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겠소."

오달 국사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은 성인의 법력이 아니고서는 풀 수 없음을 거듭 통감하고 자비수참법을 지어 아침저녁으로 외우고 예배했다. 이 사실은 천하에 퍼졌으며 성인의 삼매수로 오랜 원한을 씻어냈다 해서 자비수참(慈悲水憐)이라 이름했다.

오달 국사의 인면장 설화를 통해 우리는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는 부처님 말씀이 더욱 생각난다. 우리 삶에서도 무엇이든 잘 풀릴 때가 더 위험하고 함정이 많은 법이다.

올 해도 호시우행(虎視牛行)하라는 말씀처럼 판단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행동은 소처럼 신중하게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 시가 있는 도량

겨울밤

밤눈이 봉창을 두드리면 그런 밤이었지.  
눈썰 질은 어미는 호불호 아래서 해진 양말을 깨매고 있었고  
우리들은 무명 솜이불 속에서 머리만 내밀고 초롱초롱한 눈매로 아버가 들려주던 무서운 옛날이야기를 들었지.  
늑대가 '오시랑 캬캬' 울어대고 호랑이가 '어흥!' 하고 덩벼들면 이불 속으로 깊숙이 자맥질했는데 드넓은 잠의 바다 속을 통당거리다가 가만히 기슭으로 머리를 들이밀때 헛간에서 닭들이 소란을 피우기도 했지.  
아비는 족제비가 들었다며 랩츠 심지를 키웠고 우리들은 문밖 세상이 무섭다며 이불 속으로 숨어들어 가슴만 모아 쥐고 있었지.  
그날 이불 속에서도 밤하늘 별들이 반짝이고 밤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지.

- 최기중, 시집 <만다라화>에서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오달세원(悟達洗冤) 편. 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cm

## 본원 불교 의식대학 제 5기 학인모집 안내문

1. 교육기간 : 1년
2. 모 집 일 : 2010년 3월 3일까지
3. 수업일시 : 2010년 3월 5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6시~
4. 교육내용 :
  - 기초반 - 도량성, 종성, 기도 의식, 조석예불, 천도 의식 49제, 각단불공 및 사찰의식 전과정
  - 중급반 - 거불, 복청계, 천수바라, 요잠바라, 도량계, 다계작법
5. 입교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이 있는 출가자 및 재가 불자
6. 교육장소 : 종로구 평창동 대승불교본원중, 교육원
7. 강 사 진 : 만혁스님
8. 접수 및 문의 전화 : 02)391-4376

사단법인 **대한불교본원종본원불교의식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17-3  
TEL 02)391-4376 / FAX 02)379-2746

##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 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촉박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 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 1. 사찰매매시 전금대출, 봉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 2. 이사장(前) 제9구 분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은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기림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착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 강릉 인일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숲속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10년 1월 16일 - 1월 22일 [6박 7일]	우도다나 사야도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일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옥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작 날 - 1월 16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월 22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방한소울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 한방(韓方)치료로 당뇨.혈압.비만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당뇨약 복용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맞춤 한방치료**로 상담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너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1127-중-6353호